

승리의 생활 시리즈 3

# 금송아지 사건

The Golden Calf Affair

James W. Knox 지음

고 정 인 옮김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승리의 생활 시리즈 3  
**금송아지 사건**  
**The Golden Calf Affair**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0. 11. 27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기 이 | 고정인

펴 낸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http://www.ilovekjib.com)

■ ISBN 979-11-971322-1-6

■ 정가 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1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7). 이 장에서 우리는 함께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 기슭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끔찍한 실패는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 돌 판에 쓰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발생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명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장소와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보다 더 잘 묘사하는 구절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들을 만들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매우 어리석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슬프지만, 이 요구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보면,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요구였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과 가족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유월절을 직접 경험했으며, 처음 난 자들의 죽음으로 인해 울부짖는 이방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들 앞에 놓인 홍해와 그들 뒤를 쫓는 군대 사이에 서서 주님께서 홍해의 물을 나누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 바다가 파라오의 군대를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앞서 간단히 묘사한 그 놀랍고 위대한 사건들이 여전히 그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론에게 그들이 숭배할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경악할만한 것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경고는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경이로운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엄청나게 빨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분을 잊을 수 있다는 점을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21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장면과 그가 여호와와 대화하는 동안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들은 불이 붙은 산 아래에 서서 발아래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첫째로,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기다리는 데 지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설령 모세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들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교훈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매우 빠르게 돌아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심지어 구원 받은 사람들조차)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을 신뢰하며 그 사람의 뒤를 따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상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파라오와 싸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다투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있는 자를 따라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난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없었으므로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갈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회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입는 옷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뢰할만한 목회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 의해 이끌려, 혹은 자극 받아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며, 정도껏 봉사하지만, 자기 혼자 남겨졌을 때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그만둬 버립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따라 기꺼이 이끌려 가겠지만, 스스로 영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 즉시 멈추고 맙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었지만, 그들은 모세가 그랬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었지만, 모세 없이 백성들은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부재할 때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실패하거나 떠나면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주변에 있을 때만 봉사합니다. 십대 청소년들은 부모가 올바르게 살라고 강요할 때만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와 집을 떠날 만큼 나이가 들면 즉시 세상을 향해 질주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친구 또는 목회자의 믿음을 생각 없이 따라 가는 것뿐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거나 우리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이적을 보았지만, 그 이적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들을 이끌어 내신 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양쪽 옆 기둥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모세와 같은 이들이 더는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 2

이번 장에서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더 온전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구절에 제시된 진리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각 요점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백성이 보고는”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7). 눈의 정욕은 우

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고 능력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이미 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본 것에 따라 믿는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6:31). 볼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선물이지만 그 능력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입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가 늦어진 것일까요? 모세는 한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론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2주 후에 돌아 오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시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여 성급히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만큼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라고 말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한 악한

종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 받습니다 (마태복음 24:48).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지체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고 가정해서는 안되며, 그분의 부재를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 요점은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더를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리더가 물러나거나 불안정해 보이면 그들은 다른 리더에게 달려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리더에게 의지할 것이지만, 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론과 같은 또 다른 리더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하나님을 기꺼이 리더로 삼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로, 목회자 주변으로, 교파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자에게로, 그리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네티즌에게로 모여듭니다. 주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라고 예언하시며,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도시를 위해 우시며 다음과 같은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 모세 대신에 주님께로 모였다면 많은 실수와 절망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훌륭한 리더들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게 의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속도와 자신감으로 전능하신 분께 달려간다면 일은 훨씬 더 잘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초대 교회가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네 번째 요점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입니다. 이러한 죄와 무지에 대해 지적하는 성경 구절은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기록된 이 끔찍한 요구는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거부하는지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신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묻지 않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놓고 이토록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 보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군중이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이들은 한 명씩 아론에게 와서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다. 신앙심은 없지만 의지는 강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쪽저쪽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많은 무리가 감정에 휩싸였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눈치 채지 못한 채 아론에게 돌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눈먼 자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먹이시고 치료하신 이를 쫓아내라고 외치는 자의 모습 역시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자들의 친족이 바라바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모이게 되면, 그들은 집단적 흐름에 동참하고, 즉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들이 친하게 지내던 이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합니다.

이는 대중이 한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다른 연예인에게로 넘어가고, 연설 한 번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한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선택하며, 자신에게 한없이 친절했던 목사를 쫓아내는 무리에 동참하고, 다들 그렇게 입으니까 본인도 그 트렌드에 맞게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듯이, 이것은 그들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전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재앙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 난 자를 친 것도 아니며, 모세가 홍해를 가르친 것

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사, 가정, 직업 및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연한 기회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세어 보지 않고, 그 축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인간들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며 사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점은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주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모세를 찾거나 그가 잘 지내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우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셨고 모세와 마찬가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그분은 그분을 따라다니던 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믿는 분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참을성 있게 순종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그

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 대신 죄나 어리석음 또는 우상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대부분은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분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 중대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 3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동안 그들이 마주한 광경과 소리는 여태껏 그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큰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9절-25절을 함께 읽어보고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네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9절). 그러므로 모세가 산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 여호와의 음성은 산 아래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한 달 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쉬우므로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으십니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에 참석하십니까?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도 거룩한 산기슭에 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 (9-11절). 주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각 가정은 특별하게 옷을 빨아야 이유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부모들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비해야 하는 이유를 자녀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실제로 내려오셨을 때,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백성이 그분의 내려오심을 볼 것

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은 깨끗함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그분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나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머무르길 원치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와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그분의 영광과 임재,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해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 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12-13절).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산기슭에 누군가 보초를 서고 있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침입자를 죽이시려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그분의 이적을 보았고 그분께서 진노와 죽음을 극적인 방식으로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들

이 그 장소 근처로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점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무관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에 관한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고,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산기슭 주위를 빙빙 돌며 혹시라도 자신들이 죽을까 걱정하며 계명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토록 엄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고 번개가 번쩍이는 동안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 날에 대한 협박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송아지와 같은 신을 몰래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

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14-15절). 하나님과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의 만남을 위해 가정 생활의 정상적인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시 한번,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족은 교회 모임을 방해할 만한 일정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일요일 아침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은 결코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기쁘게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만, 우상 숭배를 선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칙이 그저 귀찮게 여겨질 뿐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16절). 모든 눈이 그 표적을 보았고, 모든 귀가 그 소리를 들었으며,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닌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17절). 산기슭에 사람들이 무리 지어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계급에 따라, 어린이들은 부모의 훈육 아래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며 모였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거벗은 채 춤을 추며,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가 자신의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빨리 강박해졌고, 그토록 큰 악을 행했습니다.

시내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 산에 곧 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18-20절). 여기에서 잠시 멈춰 어떻게 이렇게 두껍고 거대한 우뚝 솟은 암석이 지질학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내려오심에 의해 화산으로 바뀌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려오시자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하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점 커지는 나팔소리가 산의 가파른 경사면을 휩쓸며 아래에 있던 진영을 통과하는 상황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모세가 산으로 부름 받았을 때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6주라는 기간 내에 그 경험을 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세가 주님을 방문하는 동안 계속되었을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서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임재의 증거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고 있음에도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원했지만 신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그분을 대신할 신을 원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 떨리는 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며 산을 진동시키는 강력하신 하나님,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바다를 나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아론에게 다가갔고, 우상을 만들었으며, 별거벗고 춤을 춘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결론은 도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출애굽기로 향하게 한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7). 이 구절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이적을 행하신 후에도 백성들이 그들을 구출

하신 하나님을 경멸했던 몇 가지 이유를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 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21-25절).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분이었습니다. “명하라, 거룩히 구별하라, 못하게 하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등등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너무 부담스러웠고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금으로 만든 형상은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 형상은 산 위에 계신 분보다 훨씬 나은 신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를 구하시는 어린양이나 우

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은 원하면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을 물리쳐주시는 하나님은 원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은 원하지만, 그 여정에서 순종해야 할 규칙은 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은 원하지만, 통치하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4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며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교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므로 (출애굽기 32:24).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땅을 떠날 때 이집트인들로부터 은 보석과 금 보석과 의복을 빌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

트인들은 아마도 전염병이 멈추기를 바라며 노예들에게 그들의 재산 일부를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떠날 때, 그들은 그 보물을 어느 정도 지니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구출을 기억하며 이 보물들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마른 홍해를 건너 반대편 독에 서서 파라오의 군대가 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숙고하면서 그들은 그 보물들을 계속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 숭배와 반역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나자, 그들은 귀에서 금 귀고리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물을 포기하도록 요구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금을 수집하는 냄비에 보물을 기부하여 아론이 자신들이 숭배할 신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께는 바치지 않았던 금을 거짓 신에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양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 역시 매주 일요일마다 십일조와 헌금을 내라고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덜대고 비판하며 불평합니다. 특별 헌금이나 건축 헌금을 모으면 그들은 화를 내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나 정신을 쏙 빼놓는 게임이 매장에 출시되는 순간 아낌없이 헌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를 긁습니다. 케이블 TV나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면 그 요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자녀를 위한 값비싼 축구화, 낚시를 위한 최고의 미끼 및 장비를 충동적으로 구입하며, 구하기 어려운 야구

경기 티켓을 구하면 매우 기뻐하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기꺼이 그들의 우상에게 바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어딘가에는 희생적으로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살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론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산 위에 계시며 돌 판에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기록하시는 동안, 모세의 곁에서 여호와와 모든 이적을 목격한 사람인 아론은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온 세상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동안 모세의 조력자였던 아론은 손에 도구를 들고 이집트 신의 상장을 뜨겁고 잘 휘어지는 금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엄숙한 사실에 대해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사태는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아론도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온 후, 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동의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가중한 것의 크기, 모양 및 특징을 가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사용해야 했고, 결정을 내렸으며, 진영에 있던 수십만 명의 백성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 기부금을 요청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어떤 죄는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하지만, 다른 죄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발전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과 대면하는 장면을 직접 본 아론은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와 금귀고리를 빼서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론이 자신의 실수를 의식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찢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금귀고리를 모은 후 나무를 자르고, 모았으며, 귀금속을 잃지 않으면서 금을 액체로 녹이는 방법을 아는 많은 사람을 찾아서 고용했습니다. 마침내 금을 녹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불을 지폈고, 모세가 떠나있는 동안 회중을 책임져야 했던 아론은 이 부끄러운 일을 감독했습니다. 아론은 액체가 된 보물을 수집해서 형상을 새길 수 있을 정도까지만 알맞게 굳도록 그 액체를 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 산에서는 천둥소리가 들려왔고, 디디고 있던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인간이 지핀 불에 시선을 고정해 채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



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엄청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기간동안 아론은 그 범법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론은 하나님ی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빛나는 귀금속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적당히 굳은 금을 이리저리 만지고 주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론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육신에 굴복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군중의 뜻에 복종하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는 힘껏 가장 어두운 죄를 가장 끔찍한 깊이까지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경험은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이전에 부여 받았던 초자연적인 축복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사악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냉정하고 무섭지만 진실입니다.

## 5

출애굽기 32장 5-6절에서도 죄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연관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명도 없는 ‘그것’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우상, 여자, 돈, 남자, 스포츠, 휴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듯합니다. 헌신하고 있는 대상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영원한 저주로 그들을 심판할 힘이 없는 한, 그들은 ‘그것’에게 기꺼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본성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하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아론의 어리석은 행동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그가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장인이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니.

양심이 작동하는 이성적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직접 알려주시는 게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생명도 없는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처럼 보이지만, 어느 나라이든지,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든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에서 ‘그것’이 창조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 명예, 헌신, 희생, 그리고 경배를 그분 대신 풍성하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되느니라 (야고보서 3:10).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헛된 관행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아론과 백성이 책임 져야 하는 또 다른 끔찍한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위 숭배를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관능적인 기쁨으로 바꿔놓고는 그것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돌며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잔치하며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함께 모여서 벌거벗은 채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신성 모독은 고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록 밴드가 연주를 하고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현대적인 예배가 “주를 위한”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거리에서 설교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법률과 지옥에 대해 전하는 사역자들에 저항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방탕한 생활은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맹세하는 주정뱅이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SNS 자기 소개란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 놓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거의 벌거벗은 채 해변 또는 침실이나 욕실에서 찍은 사진을 “주를 위한” 같은 해쉬태그가 가득한 그 SNS 계정에 올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2월 내내 교회를 꾸미며 이는 “주를 위한” 크리스마스 장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예배에 이교도의 종교와 이교도의 축제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봄철이 되면 그들은 야만인들이 다산을 기

원하며 행했던 예식이라는 걸 모른 채 바구니에 달걀을 가득 채우고 미소를 지으며 “주를 위한” 부활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분께서 분노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멀어버린 그들 자신의 마음에게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속이며 위로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7).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19).

그들은 스스로 자신만의 신을 만들었고, 자신만의 명절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예배 방식을 정했으며, 자신만의 행동 강령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큰 죄에 의로우신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노골적인 대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지극히 현대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사람들은 흥분

하고 신이 나면 일찍 일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활동이 계획되어있을 때 그들은 서둘러 침대를 벗어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게 기꺼이 물질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번제 헌물을 태우기 위한 불은 주님을 위해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신 분은 막상 그러한 영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향한 열광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위한 잔치를 열기 위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진짜 신이신 주님이 아닌 가짜 신을 위한 이 명절을 급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캠핑이나 낚시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받아들이 수 있지만, 새벽기도를 위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다소 극단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닷가나 산으로 여행을 가서 하루 정도 더 놀고 오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예배시간이 정오를 넘기는 것이나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돌아오는 것은 터무니없게 여겨집니다. 사교 모임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는 옷을 잘 차려 입지만, 교회에 갈 때는 가장 편안한 옷만 골라 입는 듯합니다. 회사 규칙, 친목회 규칙, 아파트 위원회의 규칙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정하신 규칙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돈, 생일을 위한 돈, 쇼핑을 위한 돈, 외식을 위한 돈, 인터넷을 위한 돈, 휴대폰을 위한 돈, TV를 위한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예배시간에 드리는 헌금은 어찌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종교는 오늘날에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전념하는 동안 조용히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신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계명도 주지 않았으며, 심판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그리고 능력도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신은 그들이 허영과 죄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짐승의 무리를 위한 완벽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선택한 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비판이나 비난의 말없이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스러운 희생물을 가져오고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친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고, 함께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현대적이었고, 포용적이었으며,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그는 너무나 좋은 리더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한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이사야 56:10).

도둑이 건물에 침입했을 때 짓어 대지 않는 감시견보다 더 쓸데없는 감시견은 없는 것처럼, 예배 장소에 죄가 침입했을 때 부르짖지 않는 영적 지도자보다 더 쓸데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대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죽은 개처럼 경고하지 못하는 사역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쾌락만을 좇는 회중들로부터 멀어지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할 때가 왔습니다.

## 6

오늘 읽을 구절들인 출애굽기 32장 7-8절은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혼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류는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주는 많은 편지들이 이 구절들을 잘 지지하고 있으므로 다음 구절들에 주목해서 진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을 심각하게 거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들과 함께 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기시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민족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살고, 걷고, 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모독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지만,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산기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이 감히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생각에 공

개적으로 대답하심으로써 그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것은 어린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이미 명하신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그 말씀이 기록된 돌 판을 보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산으로 올라가 십계명과 주님께서 하시는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알려준 후 (출애굽기 24장), 산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지침과 돌 판을 받았습니다. 즉, 백성들은 주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의 입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것이므로 불신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17).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한 태도는 주님께 대한 부주의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잘라내어 모세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의 역사 전체에서 히브리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시면서도 종종 그들과 거리를 두기도 하셨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네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에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 낼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느니라 (이사야 50:1-2).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증보하

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로마서 11:1-4).

이 대표적인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시지만, 우상이나 거짓 신에 동참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의로움보다 죄를 선택할 때,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를 메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들의 더러운 범법행위에 동참하지는 않으십니다.

갈보리에서 바쳐진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고(히브리서 10:10-14),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으며(요한복음 14:16), 우리의 구원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고린도전서 12:12-13).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날에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로마서 8:38-39), 이 세상 삶에서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과 유익을 잃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 하

나눔께서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보류시키셔야 했듯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분의 성도들이 그러한 끔찍한 행위로 그분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분께서는 그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음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잘 드러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죄 없이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버지로서의 주님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아들과 딸의 특권인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생명은 은혜만으로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받은 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풍부함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바쳐 만들어낸, 제단의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의 명절날 실컷 먹어대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나온 우상을 위한 음악을 연주하며, 그들의 몸이 박자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고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과 삶의 간증에 따라 그들을 다루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둘 다 죄 가운데 살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을 알맞게 심판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둘 다 생명, 사랑, 평화, 기쁨, 소망, 공훈, 친절, 위로, 힘, 분별, 그리고 은혜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알맞게 그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애착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부어주고 싶어하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 7

출애굽기 32장 9절-10절은 우리가 이전에 연구한 구절들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가장 중요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진리를 제시합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중대한 죄와 그들이 처한 참담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의 진노를 일으켰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아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고,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마치 그분께서 하시려는 일이 공평하고 의롭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 증인을 원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맹렬히 진노하여... 성경의 하나님은 현대 교회가 발명해낸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쫓대가 없으며 관대하고 수동적이며 멍청한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이 진노는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공홀과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면,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분의 진노가 폭발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의 거대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터무니없는 생각과 반대가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현대 사상에 심취한 이교도들이 만든 모든 사악한 계략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대적하

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이교도의 길들을 따라 걷는다면, 그분께서는 심지어 그들조차 대적하십니다.

그들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소멸시키실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세대는 여호와와의 절대적 거룩성에 관한 이 진리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룩한 위협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 사용하신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정을 나타내는 “may(~일지도 모른다, ~할 수도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Can(할 수 있다)”이라는 단어는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반면, “may”는 허가 또는 동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제거하실 수 있고, 그분의 분노를 최대한 쏟아내실 수 있으며, 모세와 함께 새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산기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 정당한 행동을 무언가가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과 함께 경이로운 눈으로 처음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that I may)...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소멸시키고”, “만들리라”라고 번역이 되

어 있지만, 영어에는 두 단어 앞에 may가 붙어 있어서 “소멸시킬지도 모른다”, “만들 수도 있다” 같은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역주)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계시된 위대한 진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증보는 주님께서 모세가 그들 편에 서 있는 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그분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증보 기도 요청에 대한 구절들과 기도하라고 지시하는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올린 우리의 연약한 간청이 이처럼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부르짖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길을 막지 말아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반역자들을 삼켜버리실 수 있었지만, 모세가 그들 편에 서 있는 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인해 진노하시지만, 그분의 눈앞에서 그들 편에 서서 증보하는 자로 인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분께서 범법자들을 치기 위해 손을 드셨지만, 의로운 사람이 그 사이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위해 모세의 허락을 요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께서는 두 속성 중 하나에 따라 행동하실 수 있으며 그 행동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의 입장을 진노의 측면에서 관용의 측면으로 옮겼고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그 진노에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같은 곳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자들이 꾸준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실패할 때와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34).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

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7:25).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1).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중보가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섬기는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앞에 홀로 서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 구절들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한 사람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그분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실제로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설교를 들었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8

이전 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드린 중보 기도를 통해,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켰는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해보았으니 이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

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출애굽기 32:11-14).

이 중보기도에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주장, 하나의 요구, 하나의 간청 및 하나의 대담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세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이유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보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로마서 8:26-27).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주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그분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집트를 무너뜨린 힘과 능력이 히브리인들에게 쏟아진다면 그들이 소멸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 다시 고려하시도록 하

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대답했지만, 결코 무례하지는 않았 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일을 정당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취하실지도 모르는 행동에 대해 그분을 정죄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여호와와 이름의 영광이 위태로워지고 있음만을 상기시켜 드 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선을 넘으셨다거나 히브리인들을 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모세 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할 다른 방법이 있음 을 상기시켜 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도를 하려면 그 기도의 동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목적을 요 구할 때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야고보서 4:1-4) 주 님의 이름이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를 드릴 때, 우 리는 그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의 이런 대답함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돌이키소 서”라고 문장이 끝나서 높으신 분께 아랫사람이 호소하는 느낌이 나지 만, 영어에서는 단순한 명령문을 사용해서 “돌이키라”라고 명령하는 느낌이 납니다. - 역주) 모세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려

는 걸까요? 이 부분만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먼저 몇 가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노는 맹렬한 분노, 즉 행동하는 분노입니다. 맹렬한 것은 격렬하고, 흥포하며, 엄청나고, 무지막지한 것입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는 마치 울부짖는 사자나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돌풍처럼 그분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자들에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악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 또는 죄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백성들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사악한 범죄에 대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회개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며, 꼭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몇 주를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시하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는 데는 사실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돌 판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더라면 이는 단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가 산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교제를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출애굽기 33:11). 하나님의 친구인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그분께 촉구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이 의로워서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오래된 약속과 그분의 선하신 이름과 엮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을 때 이방인들이 그분의 이름에 가져올 비난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모세는 현재 상황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돌리고 그분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때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감히 명령을 내리는 뻔뻔스러운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의 진실함에 호소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는 단지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을 상기시켜 드렸을 뿐입니다. 이 대언자는 주님의 성품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분의 성품을 그의 호소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중보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근거로 주님께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의로움이 있다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지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움직여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모세의 말은 전체적 관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행동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분께서 만들어 내신 그들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허영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순간, 모세는 그들이 먼지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왕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하거나 그분께 바칠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거짓말을 하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뿐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성은 그분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패나 문제를 만나 절망에 빠질 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니

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정말 놀랍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자주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멈추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는 혼에게 공휼을 조금 더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 9

이번 장에서는 우리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목할만한 흥미로운 진리를 담고 있는 6개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 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치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출애굽기 32:15-20).

먼저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관한 가장 확실한 진술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들과는 달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그분은 우리와 같이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과 자신의 손가락(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닮음을 기억하십시오)으로 돌 판 위에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단어들이 그 돌 판 위에 쓰여지는 장면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사람은 언어를 개발하고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큰 보물입니다!

둘째, 이 구절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나 들을법한 공포스러운 소리를 음악이라고 칭하는 상황을

보기 위해 20세기 말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폭력의 소리, 대포가 터지는 소리,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리를 듣고 큰 전투가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백성들의 땅에 쏟아진 피와 내장들 그리고 죽어가는 시체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모세는 그 소리가 전쟁에서 패배해 다치고 망가진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악기를 두드리는 소리와 산 중턱까지 울리는 노랫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에게 자신을 바친 백성들은 쿵쾅거리는 드럼 소리와 손톱으로 철판을 긁을 때 나는 날카로운 소음과 길거리의 차들이 뺑뺑거리는 소리 같이 그들이 저지르는 악한 관행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신들과 음악은 백성들이 별거벗고 수치스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27절은 이러한 끔찍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쁜 음악과 나쁜 행실은 대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들은 모세의 분노에 대해 기록합니다 (19절). 목회자, 성숙한 시민, 부모 또는 배우자는 결코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좋은 뜻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7:11). 또한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라고 기록하며 (마가 복음 3:5) 성령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26). 죄와 범법, 그리고 해를 끼치고 더럽히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적합합니다. 화를 제어할 수 있는 한, 화를 낼 만한 많은 적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상태와 배교한 대부분의 교회의 상태를 보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넷째, 위 구절들은 모세가 돌 판을 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진실과 하나의 실용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원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원문을 부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의 강단과 신학교 수업에서 “성경 원문에 기록된 이 단어” 혹은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같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오늘날 살아 있는 사람 중 성경 원문에 기록된 단어를 하나라도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던지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산꼭대기로 돌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본을 받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책을 최대한의 존경을 담아 다루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경 위에 잡지나 신문이나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찢어진 것을 볼 때 불편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잉크와 종으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돌 판을 던져버린 모세나 성경을 찢거나 혹은 성경에 음료를 쏟은 누군가로 인해 불쾌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왜 산기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불

쾌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놀라운 구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20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백오십만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한 명의 설교자를 쉽게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연주하고 있던 음악을 멈췄고, 그들의 춤을 중단시켰으며 그들의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가루가 된 우상을 용광로에 던져 넣고 녹였습니다. 녹은 금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용히 기다리는 동안 모세는 망치로 녹은 금송아지를 내리쳐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줄을 서서 그들의 재물이 가루가 되어 똥똥 떠다니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도록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날 성취한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우리 시대에도 성취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짓 종교와 타락한 숭배를 대적하여 그분의 편에 기꺼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전능하신 분께서 모세를 위해 행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해 똑같이 행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세가

했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게 옳은 편에 서서 그른 것을 대적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숙고해 볼 마지막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했습니다 (출애굽기 12:36). 하룻밤 사이 그들은 노예에서 개인 재산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전의 삶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금을 기꺼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은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쳐졌지만, 이제 그것은 물 위를 떠다니는 가루가 되어버렸으며, 그들 몸에 흡수되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금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과 축복을 그분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에 바친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 선물과 축복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교훈을 통해 배우시길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 다음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룻기 2:12).



## 10

출애굽기 32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놀라운 대화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론을 대적하자 마치 5살짜리 아이처럼 반응하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무슨 일을 하였길래 네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만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라, 한즉 그

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  
나이다, 하니라 (출애굽기 32:21-24).

아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아론의 이 뻔뻔한 거짓말에 놀라셨으리  
라 생각합니다. 방금 하나님과 40일을 보낸 모세가 이처럼 말도 안 되  
는 말을 믿을 거라 기대하고 그런 건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어  
낸 건지, 아니면 미리 생각해 두었던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도 모  
세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고, 그의 형인 아론은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  
지만, 그의 눈에는 어리석음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  
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 육신에게 자신을 온  
전히 바친 사람과 대면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 앞에 제대  
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처음 한 질문인 이 백성이 네게 무슨 일을 하였길  
래를 보면 모세가 아론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아론의 생명을 위협했거나, 아론의 자녀를 인질로 데려갔거나, 혹은 아  
론이 고문당했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행해진 일은 명백했습니다. 왜 그랬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모세  
는 아론이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평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교훈은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받은 경고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무도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아담의 후손만큼 침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론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모세가 생각한 것, 그리고 아론 스스로도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네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하나님께 짓는 죄이며 사람에게 해가 되지만, 어떤 특정한 죄는 매우 큰 죄이기도 합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지은 그 죄는 모세조차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저 이와 같이 큰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 범법은 모세가 달리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어떤 죄악된 행위는 광범위한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아론이 벌인 이 행위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 전체의 믿음을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본 모든 이적과 그들이 직접 맛보았던 기적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속박에 다시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빠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제외한 모든 곳에 열 개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유월절 밤에 긴장감 넘치는 탈출을 경험했으며,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로 인해 공포를 느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바다가 적들을 삼켰을 때 안심했으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억눌렸던 이 모든 감정은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에너지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대신, 그 에너지를 그들이 직접 새긴 생명 없는 형상 아래에서 술 취하고 별거벗은 채 방탕하게 노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큰 죄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질문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와 일부 죄가 다른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말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로서, 아론은 그들의 비뚤어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었었다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은 상당히 달라졌었을 것입니다. 그가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와 민족에게서 받은 그의 의무였습니다. 아론은 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대신에 직접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부추겼고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수행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굴복하는 부모와, 타락과 배도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청년부 지도자나 목사, 그리고 주님의 올바른 길이 어느 방향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악한 세상의 길을 따라 걷는 각 개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에 맞서 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은 채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

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차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한 사람이 실제로 사건의 과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백성들의 뜻에 굴복한 한 사람이 허락했던 죄를 막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 받았고 (사무엘상 3:13), 베드로는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책망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11).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그 모범을 기꺼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사람들과 그들의 죄 사이에 서서 그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디도서 1:11).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론은 그 죄를 부추겼기 때문에 똑같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이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룩한 사람 앞에서 아론은 과자를 훔치다 잡힌 아이 또는 형식적으로 교회에만 다니는 많은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진정해요, 모세. 이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잖아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요. 백성들을 그만 판단해요. 너무 간간하게 굴 필요 없어

요.”

여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느끼기에 끔찍한 죄는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사소한 죄로 여겨집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왜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을 죄로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령님 안에서 걷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응시하고 있는 이 장면은 설교자가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부모가 반항하는 자녀를 꾸짖을 때마다,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려고 할 때마다 펼쳐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죄를 짓고 자신이 지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이의가 제기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모세, 진정해요. 사람들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화내지 말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라, 한즉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꽤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론은 정직하게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론이 내뱉은 저 말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지 않았다면 아론의 이 답변은 웃자고 한 얘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던 말들 중 가장 심각하고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직접 송아지를 만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조각용 도구 같은 것은 없었다고, 녹인 금속에 손을 댄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금을 불에 던졌을 뿐이고, 그렇게 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소는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대단한 소입니다. 불 속에서 스스로 움직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걸어 나왔는지 날아서 나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불과 금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우상이 되어 나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변명은 종종 터무니없는 소리이지만, 대개 자기 사랑과 자기방어가 결국은 승리하고 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론이 한 일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모세에게 직면하자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명백한 교훈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빨리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린다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거짓말로 그의 죄를 숨기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죄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이래로, 타락한 사람은 거룩하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동정심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백만 번, 그리고 그 이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친절하심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 11

출애굽기 32장 25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급속한 쇠퇴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우리는 거짓 종교와 관련된 음악의 유형과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이미 논의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에 빠지는 순간, 그들이 알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전과 달리 부끄러워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 앞치

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을 가려주었던 앞치마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그들을 찾고 계시던 그분의 목소리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악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어주기 위해 친히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낚시하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벗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요한복음 21:7).

허리와 허벅지의 노출은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주님께 의해 벌거벗은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우발적 노출조차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26).

알코올은 누군가의 몸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네 술 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박국 2:15).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불쌍한 사람은 마귀 들렸을 때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후 그는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은 채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거나 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신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저질렀던 오류를 통해 우리가 다음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거나, 알지 못하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또는 무력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육신의 정욕과 부끄러운 정욕을 억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고 불리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가장 부도덕한 일에 관여했습니다. 만약 어떤 신이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무관심하다면 그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배와 종교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참되고 살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남자, 여자, 그리고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노출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의 목사들은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감히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걷는 길은 출애굽기 3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더십과 영향력, 그리고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은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이제 벌거벗고 춤을 춰라”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아론이 그들의 비참한 상태의 원인이라고 얘기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그들이 바른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책망하며, 그들이 범법을 저지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신성 모독을 부추기고 그에 이바지했

으며, 그로 인해 이후의 어리석음에 대해 주님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성격이나 자리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코치, 감독, 장군, 감독자, 교사 또는 부모는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 지나치게 큰 명성을 얻거나, 반대로 그들의 실패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비난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은 항상 벌어집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권력이 있는 자를 권력 아래에 있는 자보다 더 심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데에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디모데전서 5:17).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남편, 부모, 목사, 교사 및 권위 있는 위치를 원하거나 그러한 위치를 상속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누가복음 12:48)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걷는 길을 다른 이들이 지켜보며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는 것들

은 모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아론은 자신이 결코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었던 일을 백성들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문구인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는 당시 상황을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들 뒤에 있었고 가나안의 적들은 훨씬 앞서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이 표현은 마치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육신적인 축제를 보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스파이에 대한 언급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사들과 권능들에 대한 언급인지, 아니면 해방된 노예들 가운데 있던 혼혈 무리를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길을 버리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군중의 벌거벗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도 같은 간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원수들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

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 및 세상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지 알기 위해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구름을 이루는 증인들과 (히브리서 12:1) 우리가 넘어지길 바라는 원수들에게 동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자기를 숨기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나이다 (시편 56:6). 보소서, 그들이 내 혼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강력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거니와, 오 주여, 그것은 나의 범법 때문도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시편 59: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굳건히 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축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죄에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게 하십시오.



## 12

이제 공부할 출애굽기 32장 26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대표적인 설교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 제시된 위대한 진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陣營)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라는 질문은 모든 사람의 귀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옳지 않고, 모든 것 역시 옳지 않으며, 모든 종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주님의 편이 있고, 그렇지 않은 편이 있습니다.

어느 편인가 서고 싶다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분열이 있고, 구원받은 각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편과 육신의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양쪽 편에 다 걸쳐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양편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편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은 채 춤을 추는 자들에게 하는 호소였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과 타협하는 목회자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또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젊은이에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앞이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젊은 여성의 마음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무정한 남편과 완고한 아내에게 제기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 질문은 매시간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결정에서, 우리 각 사람이 답해야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크고 흰 왕좌의 심판에서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모세가 진영을 나뉘게 한 게 아니라 죄가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를 나눈 모세가 균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한 불의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과의 분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정한 낮은 표준에 순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수용하기 위해 회중을 개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방탕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역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고, 모든 참된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질문이며, 모든 교회에서 전해져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에 모세가 진영(陣營)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모세는 주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땅에 서 있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으며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교만한 게 아니라 옳았습니다. 그는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을 구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범을 보였으며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 설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본질적으로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따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1). 신약 성경은 목회 사역을 세워주며 장로들을 성도들보다 더 존중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올바른 동반자를 선택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모세와 같은 자를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까, 아니면 아론과 같은 자를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까? 당신은 강경하게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만 해줄 설교자를 찾으실 것입니까? 당신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것입니까, 아니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 사람들과 교제할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그들은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는 교회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합시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다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당신의 목사,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당신이 선택한 동료 또는 당신이 롤모델로 삼은 사람들을 묘사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 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시편 1:1-3). 올바른 지도자를 따르십시오.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올바른 무리와 어울리십시오.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레위의 아들들은 모세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였고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과 분리되어 올바른 편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둡고 악한 시간에도, 심지어 가장 깊은 죄악의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담대하게 진리와 옳은 편에 선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더러움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편으로 올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한 지옥의 문은 그분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가 아무리 타락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담대한 지도자는 멸망하는 자들을 구출하고 여호와를 위한 땅을 세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분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된 지 몇 주 만에 그들은 추악한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반역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고 옳은 편으로 와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을 위한 가죽옷이 있었고, 홍수 전에 방주가 있었으며, 소돔을 벗어날 때 천사의 호위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관이 있었고, 삼손에게는 맷돌을 돌리는 일이 있었으며, 시몬 베드로에게는 사도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시내산 기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삼켜졌어야 마땅했으며, 아담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의 모든 죄인들은 지옥의 불에 던져지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며 (베드로후서 3:9)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4).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시편 86:5).

그러하오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니 (시편 86:15).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시편 103:8).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죄를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 하시므로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니 (미가 7:18).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4-7).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23).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 13

금송아지 사건의 여파를 공부하기 위해 출애굽기 32장 26절-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陣營)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 날 백성 중에서 삼천 명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 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을 세워 가는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점을 기억해볼 때, 질서 정연한 사회를 타락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파멸시키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종교와 비정상적인 생활 양식은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며, 그와 같은 부패가 그분의 백성들에게 뿌리내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기록은 군사재판에서 반역자를 처형하거나 반역한 시민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이 성경 기록들을 사용하여 성경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 일들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모든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악을 행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진리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 헌신한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더럽혀진 것들과 떨어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할 사람들을 불러 함께하도록 요청했고, 몇몇 신실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군중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배교와 욕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18절에서 시작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27절).

두 번째 교훈도 첫 번째 교훈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죄로 끌어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한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무리의 일부였으며 (디도서 3:1-3),

그 무리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1-3). 그러한 퇴보를 막는 유일한 보호책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의 지도 아래 구별되고 올바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에베소서 6:13, 17).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4:12). 일단 우리가 구별되고 올바른 무리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넘 어뜨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의 구원자를 실망하게 만든 죄, 악, 습관, 정욕 또는 친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27절).

셋째, 여러분은 여러분을 타락시킬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약화시킬 사람들, 우리가 죄 많은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

을 기꺼이 떠나시겠습니까? 그들이 심지어 형제, 친구, 이웃이라 해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사용할 것입니까?

주님 편으로 나아온 이들은 칼로 자신의 친구를 쓰러뜨렸으며, 형제를 찼고, 이웃을 쓰러뜨렸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눈으로 본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누가복음 14장 26절-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우 불쾌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 말씀에 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죄에 전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모든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음하는 자와 이단자가 그들이 수년간 다녔던 교회에서 퇴출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어떤 친구의 집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직업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오락과 교육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편에 서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거나 거기에 계속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 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29절).

넷째,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주님의 편에 선 자들과 함께하고, 말씀의 검을 차며,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을 끊는 것은 모두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분하는 것은 특정 의식이나 의례를 통해 거룩하게 되거나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거룩한 일에 쓸만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죄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갑자기 유혹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하게 행동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편에 선 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악에 일부러 빗나가게 편치를 날리거나 건성으로 공격함으로써 그 악에 최소한의 상처만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은 빨리 회복해서 다시 우리 삶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유혹을 강하게 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7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시내산 기슭에서 일어나고 있던 수치스러운 행동을 멈추기 위해 취한 조치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오늘날까지 세상은 그러한 조치를 비판하고 경멸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

지를 세심하게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앞에 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 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은 미지근한 입장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곰곰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이집트의 보물을 포기한 모세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수치를 일으키는 우상에게 금을 바치는 사람들과 동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주인을 섬기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인을 선택하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24).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미지근한 자가 되지 말고 차든지 뜨거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15-16). 우리는 여호와 또는 금송아지, 하나님 또는 죄, 옳은 것 또는 그른 것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합니다. 그 둘을 섞어서도 안 되고 둘 다를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 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 14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이 정점을 찍었던 순간을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35절을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대언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

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저는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위 구절들보다 더 그리스도에 대해 잘 묘사한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은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모세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보기 좋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으로 이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위해 중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해야 마땅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이 모든 행동은 부활하신 주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을 실망시키고, 심지어 분노하시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25). 필요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

보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고 자신 없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도 받지 않았고, 약속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님의 생각을 알 방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일단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긍휼이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일단 그들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속죄하러 간다면서 아무런 번제 헌물도 준비하지 않은 채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짐승이나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갈보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18:15; 히브리서 3:1-2).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혼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바로 이 구절에 회복과 용서에 필요한 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9). 모세는 반역자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가서 그들을 위해 간청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빨리 인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신속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너무 둔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고 죄를 버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모세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로마서 8:26-27). 이 기도가 바로 소리도 낼 수 없는 비통한 신음이며 측정이 불가능하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는 무겁고 깨진 마음의 울부짖음입니다.

젯세마네의 구원자를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입 밖으로 내뱉으신 기도를 성경에서 찾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그분의 눈썹 위로 흘러내리던 커다란 땀방울을 생각해 보면, 그날 밤에 그분께서 입 밖으로 내뱉으신 기도보다 속으로 신음하신 기도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들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말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모세는 진심으로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저를 멸망시켜야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3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 고백은 형제를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인간의 본성과 수준을 거의 넘어서는 사랑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와 바울의 순수한 불쌍히 여김만으로는 죄인의 구속에 필요한 대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편 49장 7절-9절은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혼을 완전히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이르렀고, 이방인 부모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모세는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혼을 줄 수 없었고, 바울은 친

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없었지만, 그들 각자가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깊고 끔찍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사랑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기도로 그들을 위해 중재할 것입니까? 만약 우리를 통해 그들이 구속받을 수 있다면 그들을 대신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도전적인 질문들에 대해 올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다소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끔찍한 거짓 중 하나를 지워버리셔서 그 거짓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거짓은 고대 이교도의 철학인 운명론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나 AD 450년경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운명론은 사제 중 한 명이었던 존 칼빈에 의해 개신교 운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영원히 불타도록 선택하셨다는 이 거짓 가르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과 교회를 파멸시켰습니다.

실제로 진리는 이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과 복음성가 가수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에 대해 부주의하게 선포하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기지 못한 자의 이름은 그들이 죽게 될 때 그 책에서 지워져 버린다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믿음과 신뢰를 두면 된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우리를 기소하던 혐의들이 지워지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에 우리를 위한 위대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모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적들에게 넘겨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의 순



수한 긍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들의 왕 되신 분의 이 위대한 신실하심에 자주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21:45).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후에도 결코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죄는 쓰라린 샅을 치러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울무와 뱀과 구덩이와 눈물과 상심이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후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렸을 여정이 어떻게 40년의 시련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시다. 그분의 약속에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종종 비참하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내산 기슭의 심판과 같은 신속한 심판의 형태이든지 혹은 광야를 헤매는 여정에서 오

는 끊임없는 문제를 통해서든지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혼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전적으로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슬픔 역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용서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동안 불필요한 어려움과 고난을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93	바울의 기도	W. H. Griffith Thomas	160	7000
94	광야 이야기	James W. Knox	104	5000
95	금송아지 사건	James W. Knox	124	5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고 정 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
- 역서 : 영의 세계, 믿음 사용 설명서,  
다윗의 실패, 광야 이야기









